

###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 ■ ‘인공지능’ 기대감

- \_ ‘의료’와 ‘운전’에 대한 기대감 특히 높아
- \_ 남녀 2030세대, 국민전체에 비해 기대감 낮아
- \_ 4060세대 기대감 높고, 특히 50대 가장 높아
- \_ 주부.화이트칼라 기대감 높고, 다른 직업군 낮아

#### ■ ‘인공지능’ 개발시 사람 필요성 평가

- \_ 의사, 예술가, 교사 등 필요성 높아
- \_ 인공지능 기대감과 일자리, 별개로 생각
- \_ 남자 2030세대, 종사자 불필요도 높아
- \_ 4060세대 종사자 불필요도 낮고, 특히 50대 낮아
- \_ 주부.자영업 불필요도 낮고, 다른 직업군 높아

#### ■ ‘인공지능’ 수용성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 \_ 인공지능 ‘능력’ 인정하지만, ‘결정’은 사람이
- \_ ‘불법행위 판결, 신뢰’(사회 공적시스템) 세부 결과
- \_ ‘투자내용 선택’(경제적 부담시) 세부 결과
- \_ ‘건강지침 선택’(경제적 부담 없는 경우) 세부 결과

##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10월 8일(금) ~ 10월 10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5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6\%$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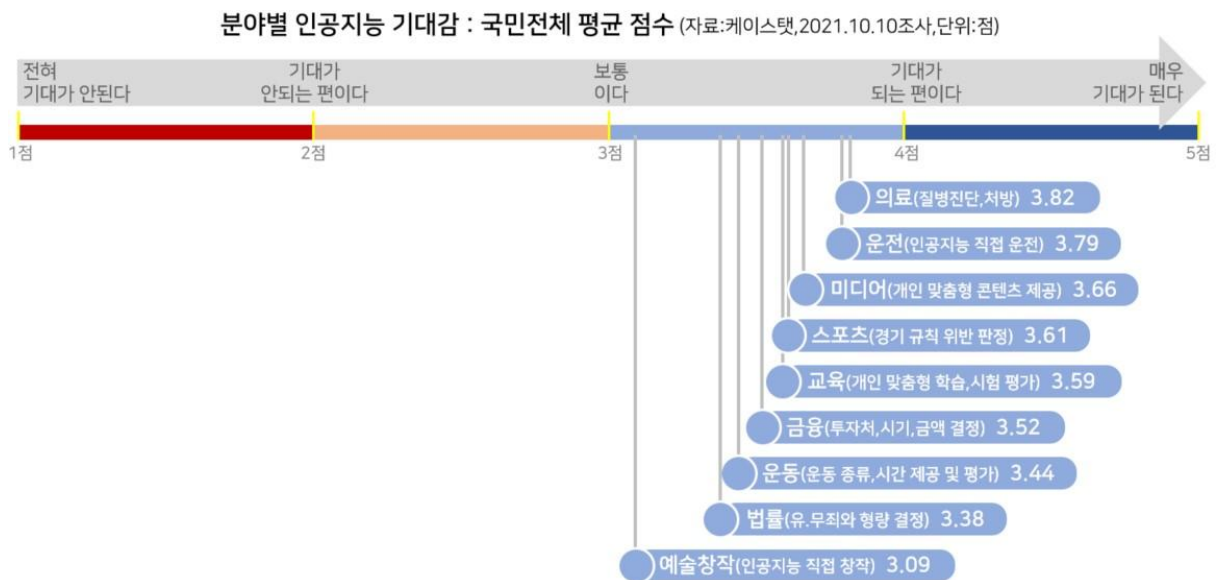
##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 '인공지능' 기대감

### □ '의료'와 '운전'에 대한 기대감 특히 높아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급속도로 향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인공지능 분야는 '의료(질병 진단, 처방)'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 각각의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가 되세요?"라는 질문 후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은 결과임
- 다음으로 '운전(인공지능 직접 운전)', '미디어(개인 맞춤형 콘텐츠 제공)', '스포츠(경기규칙 위반 판정)' 등의 순으로 기대감을 표시함
- 인공지능 기대감이 가장 낮은 분야는 '예술창작(인공지능 직접 창작)'이고, 다음은 '법률(유.무죄와 형량 결정)', '운동(운동 종류, 시간 제공 및 평가)'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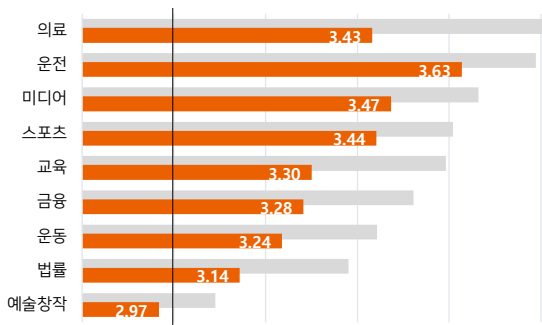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인간의 지적 능력(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대부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음
- ☑ 인공지능은 2016년 3월, 이세돌과 '알파 고'의 바둑대결로 일반인들에게 선보인 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자 인류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혁신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음
  - : 인공지능 전문지 「애널리틱스 인사이트」가 2021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장은 2027년까지 2,669억 2,000만 달러(약 303조 원)에 달하고, 연평균 3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 또한 구글 클라우드의 「제조업의 인공지능 도입 가속화」 보고서(2021년 7월 발표,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7개 국가 조사 결과)는 인공지능을 일상 업무에 사용 중인 제조업체 비율이 64%라고 분석하는 등 인공지능이 이미 산업의 중심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평가함
- ☑ 우리나라 정부도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 억 원의 경제효과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 역시 인공지능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질문한 9개 분야 모두가 '보통'(3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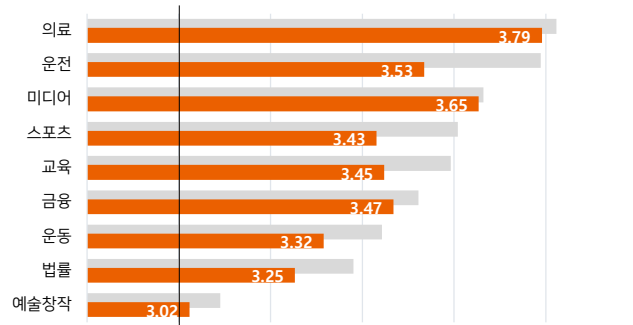
## □ 남녀 2030세대, 국민전체에 비해 기대감 낮아

- 분야별 인공지능 기대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보다 낮은 기대감을 나타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국민전체 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 특히 18~20대 남녀 모두는 9개 분야 전체에 걸쳐 국민전체 보다 낮은 기대감을 표시함
  - 남자 18~20대가 가장 기대감이 낮음
- 30대 남녀도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국민전체에 비해 낮은 기대감을 나타냄
  - 국민전체 보다 높은 기대감을 보인 분야는 남성의 경우 법률, 예술창작 분야이고 여성은 여성은 스포츠, 교육 분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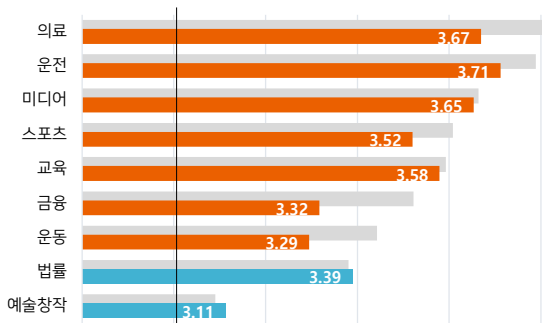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 남18~20대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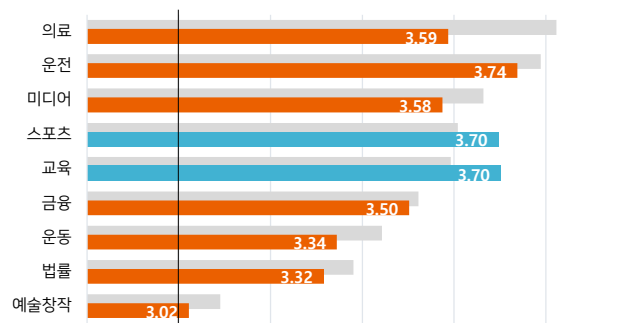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 여18~20대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 남30대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 여30대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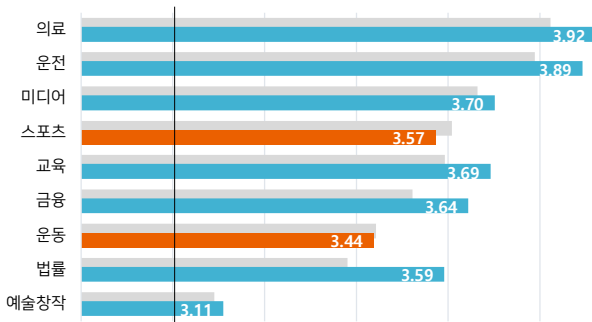
### Kstat Point

- ☑ 2030세대를 평가할 때 신기술과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고, 미래 혁신 산업을 주도할 세대로 지칭함
- ☑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받는 '인공지능'에 대한 2030세대의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조사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남
- ☑ 이는 2030세대가 '인공지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다음 장 「'인공지능' 개발 시 사람 필요성 평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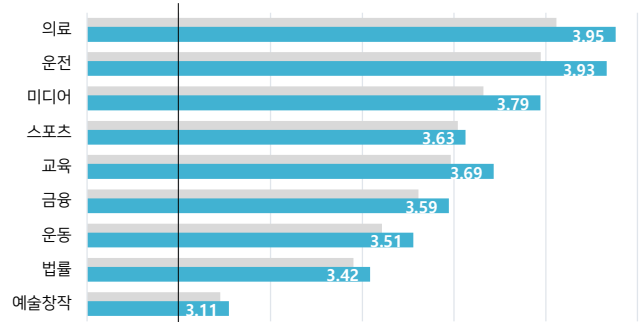
## □ 4060세대 기대감 높고, 특히 50대 가장 높아

- 4060세대의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50대는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전체에 비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냄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국민전체 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 다음으로 40대도 대부분 분야에 걸쳐 높은 기대감을 표함
  - 국민전체 보다 낮은 기대감을 나타낸 분야는 스포츠와 운동 2개 분야에 그침
- 60대 이상 역시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보다 높은 기대감을 드러냄
  - 국민전체에 비해 낮은 기대감을 보인 분야는 운전, 교육, 법률 등 3개 분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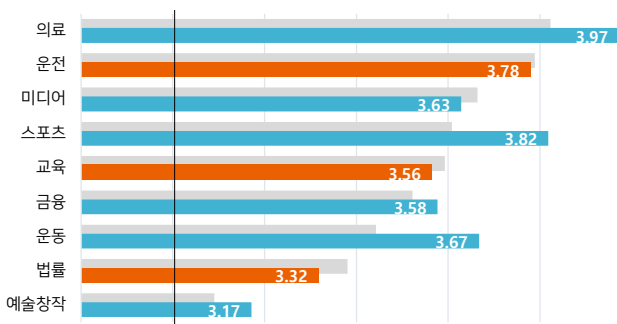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 40대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 50대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 60대이상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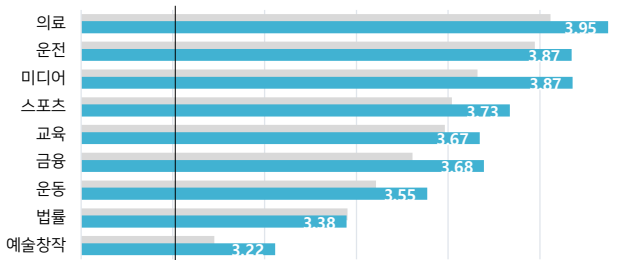
### Kstat Point

- ☑ 2030세대와 달리 4060세대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2030세대가 인공지능에 비판적인 세대라면, 4060세대는 인공지능에 우호적인 세대로 보임
- ☑ 특히 50대의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는 각계각층에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50대의 세대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 앞서 구글 클라우드 보고서에서 보듯 '인공지능' 도입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산업계 전반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고, 50대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임
  - : 50대 스스로도 '우리 세대는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함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37호 『한국민 '세대 의식' 집중 분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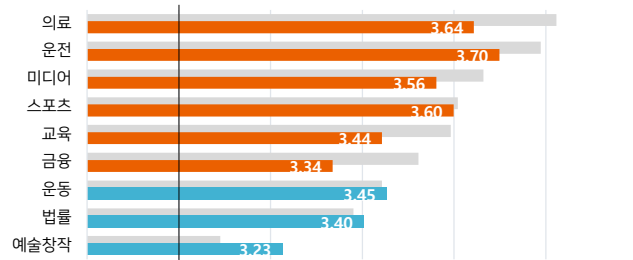
## □ 주부.화이트칼라 기대감 높고, 다른 직업군 낮아

- 직업별 기대감을 보면 주부 계층의 기대감이 가장 높음
  - 아래 그림에서 회색 막대는 국민전체 평점이고, 국민전체 보다 낮으면 주황색 막대로, 높으면 푸른색 막대로 표시함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 다음으로 화이트칼라 계층도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보다 높은 기대감을 나타냄
  - 국민전체 보다 낮은 기대감을 나타낸 분야는 미디어와 예술창작 2개 분야임
- 이에 비해 다른 직업군들은 국민전체 보다 낮은 기대감을 보임
  - 학생층이 가장 낮은 기대감을 표했으며,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자영업 종사자 등도 기대감이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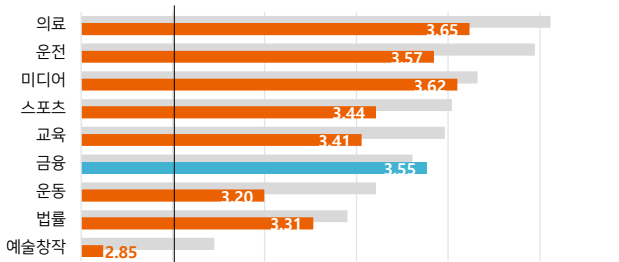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 주부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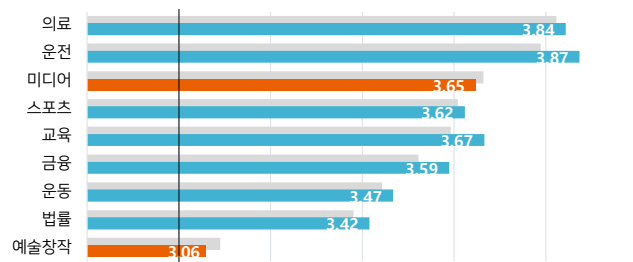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 블루칼라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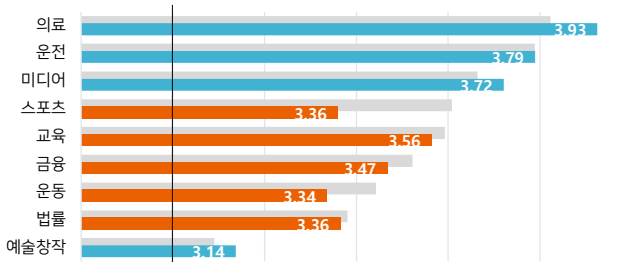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 학생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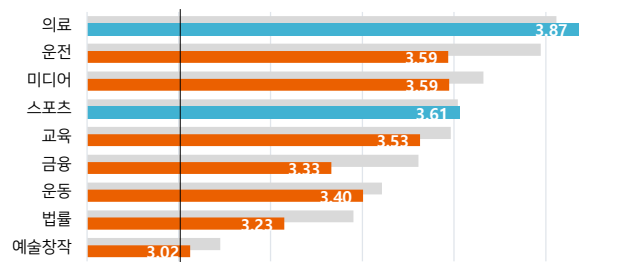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 화이트칼라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 자영업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 은퇴.무직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 Kstat Point

- ☑ 학생층의 가장 낮은 기대감은 18~20대의 가장 낮은 기대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 ☑ 전반적으로 직업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임
  - : 주부는 경제 현상과 무관하기에 가장 안정성이 높고, 화이트칼라 계층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군임
  - : 학생은 취업 이전이고, 은퇴.무직자는 취업에서 이탈해 있어 모두 기대감이 낮음
  - : 블루칼라 종사자는 불안정하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감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인간 노동력 대체 가능성(일자리 상실)이 커지는데, 이러한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 '인공지능' 개발시 사람 필요성 평가

### □ 의사, 예술가, 교사 등 필요성 높아

- 국민들은 훌륭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도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인공지능이 개발될 경우, 기존의 해당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임
- 불필요성이 가장 낮은 직업 종사자는 의사이고, 다음으로 예술가, 교사 순으로 조사됨
- 불필요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경기 심판이고, 투자 자문가, 헬스 트레이너가 뒤를 이음
  - 운전기사, 판사, 비평가·편집자 등도 상대적으로 불필요성 점수가 높게 나타남

해당 직종 종사자 불필요성 : 국민전체 평균 점수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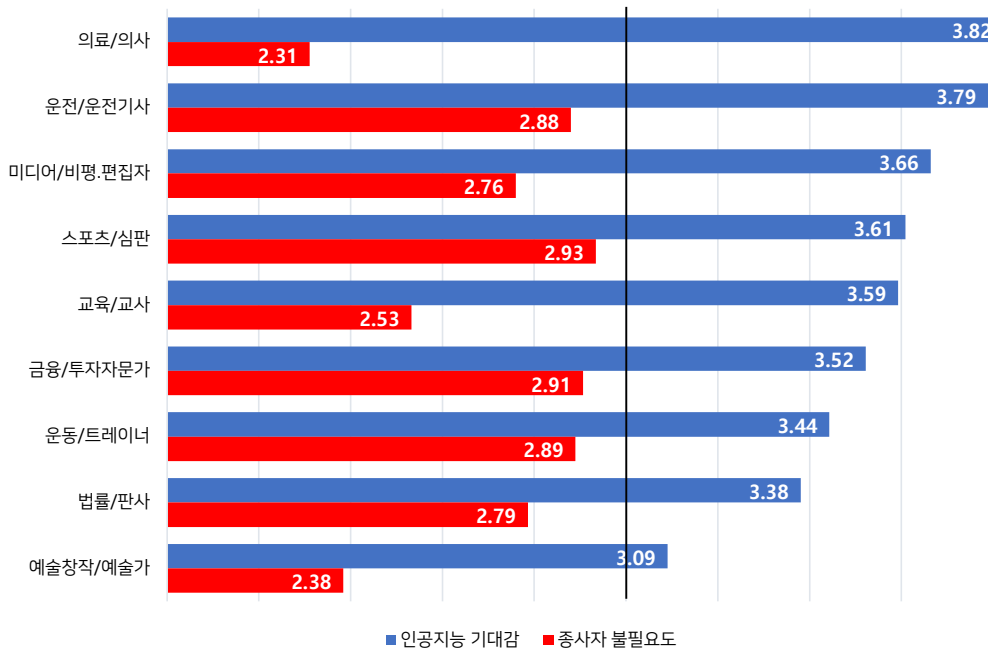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인공지능' 발전에 비례해 인간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 영국의 경제학자 프레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와 인공지능 전문가 오스본 옥스퍼드 교수는 향후 10~20년 후엔 인공지능으로 인해 노동시장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함
  -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GI)는 현재 존재하는 인간의 일자리 30%에 달하는 최대 8억 개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로 사라진다고 예측함
- ☑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일자리의 43%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됨(LG경제연구원,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보고서)
  - : 위험이 가장 높은 직업은 통신서비스 판매원, 텔레마케터, 인터넷 판매원 등의 온라인 판매 직업군이라고 진단함
  - : 기계 조작 종사자의 59%에 해당하는 산업용 기계 조작 및 제어,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 기술 종사자들도 고위험군 직종으로 분류됨
  - : 또한 현재 고연봉 직종 중 하나인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도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함
- ☑ 이번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 9개 분야 종사자 모두에 대해 '보통이다' 이하의 점수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 인공지능 기대감과 별도로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 인공지능 기대감과 일자리, 별개로 생각

- 국민들의 인공지능 기대감과 종사자 불필요도를 비교해 보면 각각 별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 기대감이 높으면 그만큼 해당 분야 종사자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조사결과는 다르게 나타남
  - 또한 인공지능 기대감과 종사자 불필요도 간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기대감이 가장 높으면서, 동시에 의사 불필요도는 가장 낮음
  - 다른 분야의 종사자 불필요도 역시 인공지능 기대감과 별개의 점수를 기록함
  -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점)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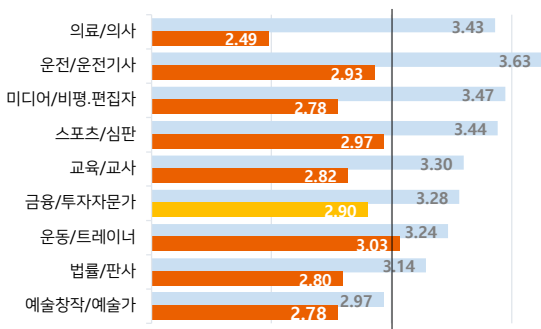
- ☑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임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일자리의 43%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됨
  - : 현실적으로 43% 보다 적거나 또는 많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함
- ☑ 국민들은 이러한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흐름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임
  - :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감 대로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 : 즉, 인공지능 기대감과 일자리 소멸에 대해서는 별개의 판단 기준과 생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 ☑ 인공지능이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소멸 문제는 향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 : 지금의 국민 여론이 유지될 경우 인공지능 발전과 일자리 유지라는 양립하기 힘든 문제가 대립하고 충돌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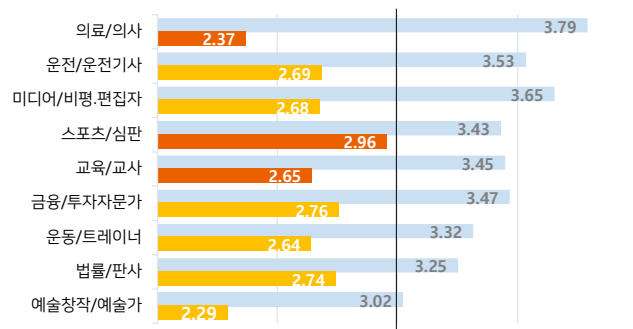
## □ 남자 2030세대, 종사자 불필요도 높아

- 연령별로 분야별 인공지능 기대감과 종사자 불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30세대 간에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자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보다 높은 종사자 불필요도를 보임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푸른색 막대는 인공지능 기대감 점수이고,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 종사자 불필요도가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으면 노란색 막대, 높으면 주황색 막대로 표시함
- 여자 2030세대는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보다 낮은 종사자 불필요도를 표시함
  - 여자 18~20대는 낮은 종사자 불필요도를 보였고, 여자 30대는 상대적으로 덜 낮은 수준의 불필요도를 나타냄
- 한편, 남녀 2030세대 모두 불필요도가 가장 낮은 직업으로 의사와 예술가를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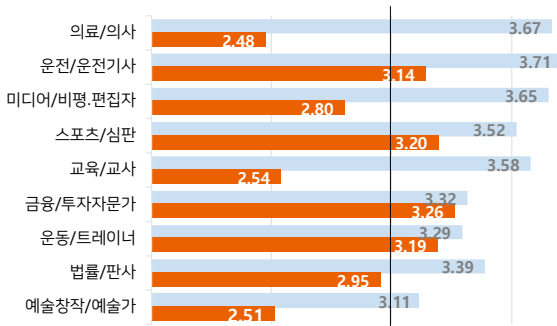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18~20대 남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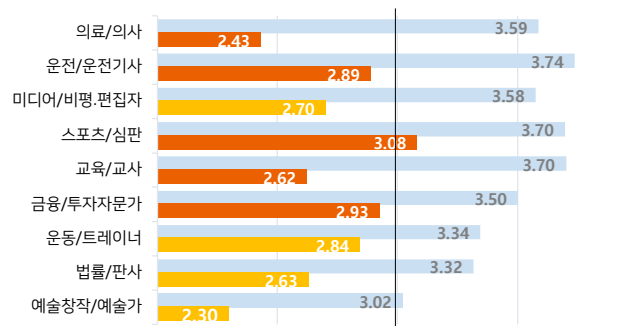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18~20대 여 (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30대 남 (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30대 여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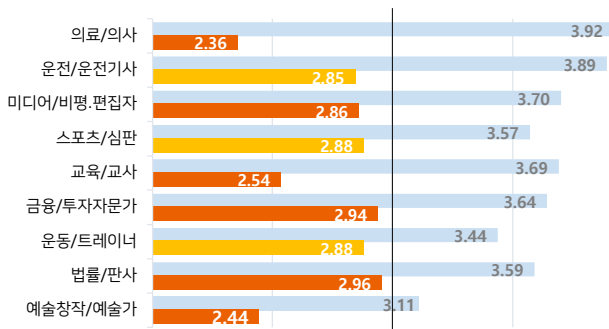
### Kstat Point

- ☑ '인공지능'에 대한 2030세대의 낮은 기대감, 또는 비판적 태도는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인간의 일자리 소멸) 할 것을 우려하기에 애써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 것으로 보임
  - : 특히 취업에 막 나서는 청년층이기에 다른 세대보다 불안감이 큰 것으로 판단됨
- ☑ 2030세대는 그만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일자리 소멸 가능성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분석됨
  - : 특히 남자 2030세대의 높은 종사자 불필요도는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임
- ☑ 여자 2030세대는 일자리 소멸 가능성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 : 특히 여자 18~20대는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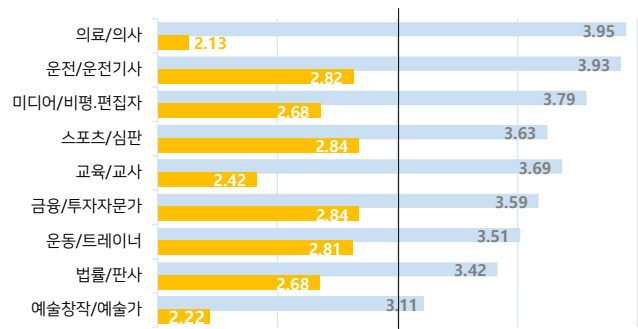
## □ 4060세대 종사자 불필요도 낮고, 특히 50대 낮아

- 인공지능 기대감에서 국민전체 보다 높은 기대감을 표현한 4060세대지만, 종사자 불필요도는 반대로 국민전체 보다 낮게 나타남
- 특히 50대는 모든 분야 종사자에 걸쳐 불필요도가 국민전체 보다 낮음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푸른색 막대는 인공지능 기대감 점수이고,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 종사자 불필요도가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으면 노란색 막대, 높으면 주황색 막대로 표시함
- 다음으로 60대 이상도 대부분 분야에 걸쳐 낮은 불필요도를 표시함
  - 국민전체 보다 높은 종사자 불필요도를 보인 분야는 운전기사, 비평/편집자, 운동 트레이너 등 3개 직종임
- 40대는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의견과 유사함
  - 국민전체 의견과 높거나 낮은 경우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음
- 한편, 4060세대에서도 불필요도가 가장 낮은 직업은 의사와 예술가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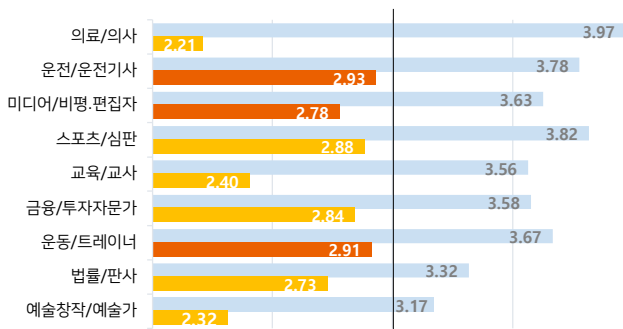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40대 (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50대 (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60대이상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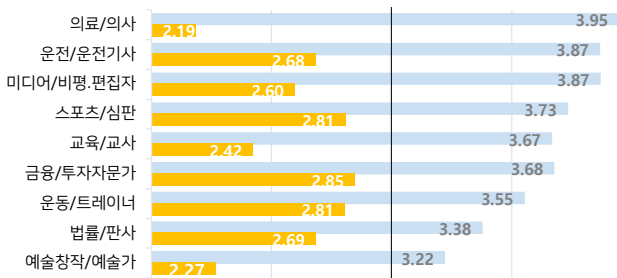
### Kstat Point

- ☑ 4060세대는 인공지능 기대감이 높았지만, 종사자 불필요도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매김
  - : 50대가 대표적으로, 50대는 인공지능 기대감이 가장 높고, 종사자 불필요도는 가장 낮음
- ☑ 이들 세대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일자리 소멸에 대해 다소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임
  - :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임
  - : 이러한 면에서 2030세대(특히 남자 2030세대)가 현실 및 미래를 냉정하고 정확하게 전망하고 있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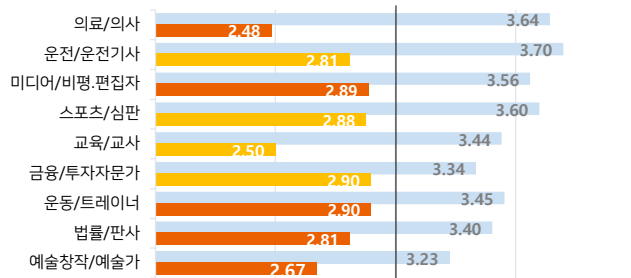
## □ 주부.자영업 불필요도 낮고, 다른 직업군 높아

- 직업별로 인공지능 기대감과 종사자 불필요도를 종합적으로 보면,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주부 계층이 종사자 불필요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열은 푸른색 막대는 인공지능 기대감 점수이고,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 종사자 불필요도가 국민전체 평점보다 낮으면 노란색 막대, 높으면 주황색 막대로 표시함
- 다음으로 인공지능 기대감이 낮은 편인 자영업 종사자가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보다 낮은 종사자 불필요도를 보임
  - 국민전체 보다 높은 불필요도를 나타낸 분야는 비평.편집자와 예술가 등 2개 직종에 그침
- 다른 직업군들은 국민전체 보다 높은 종사자 불필요도를 기록함
  - 화이트칼라 종사자의 경우 인공지능 기대감이 높았고, 종사자 불필요도 역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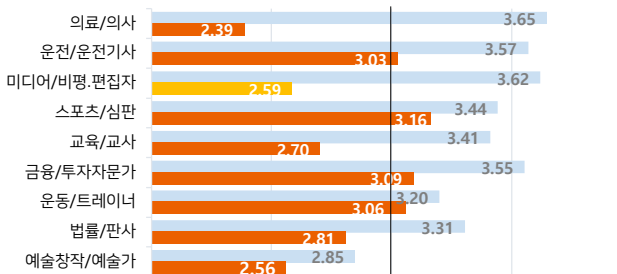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주부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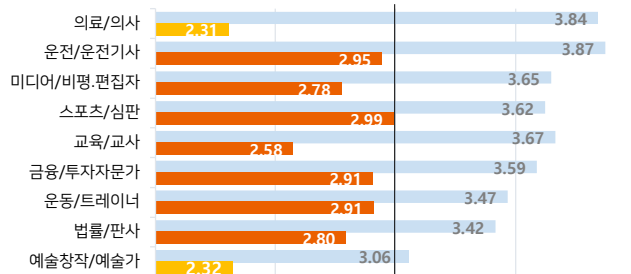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블루칼라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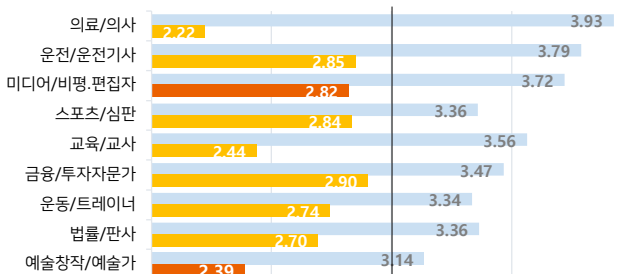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학생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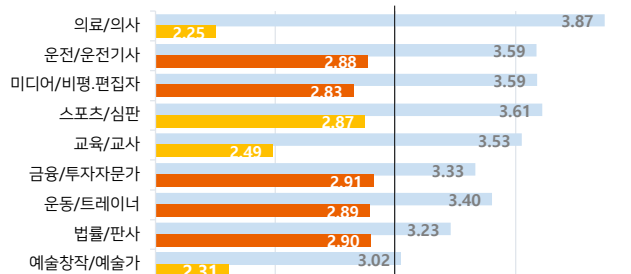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화이트칼라 (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자영업 (단위:점)



인공지능 기대감, 종사자 불필요도 비교 : 은퇴.무직 (단위:점)



###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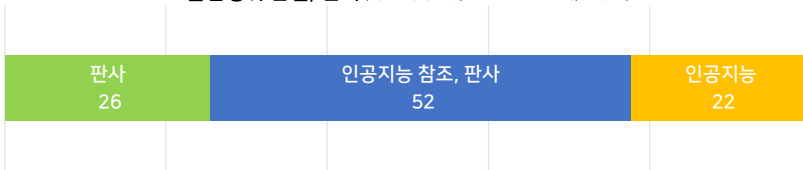
- ☑ 인공지능 기대감은 높고 종사자 불필요도는 낮은, 다소 비현실적 태도를 보인 대표적 직업군은 주부 계층임 : 주부 계층의 경우 취업 현장에서 떨어져 있다는 현실적 조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 화이트칼라 계층은 인공지능 기대감이 높고 종사자 불필요도 역시 높은, 현실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 '인공지능' 수용성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 □ 인공지능 '능력' 인정하지만, '결정'은 사람이

-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사회심리적 문항을 설계함
  - 설문 설계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고려했는데 '사람'과 '인공지능' 중 누가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임
  - 유능함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결정'과 '인공지능 결정'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기를 만들었으며
  - 인공지능 '권한'을 알아보기 위해 '인공지능 참조'라는 보기를 중간에 추가함
  - 질문은 사회 공적 시스템, 경제적 부담 시, 경제적 부담 없는 경우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함
- 조사결과 국민들은 능력 면에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유능하다고 생각함
  - 경제적 부담 시(투자 내용 선택), 경제적 부담 없는 경우(건강 지침 선택) 모두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선택함
  - 사회 공적 시스템(불법행위 판결 신뢰)에서는 사람이 근소하게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을 판결하는 것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 권한 면에서는 인공지능에 전권을 주기 보다 사람을 보조하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함

불법행위 판결, 신뢰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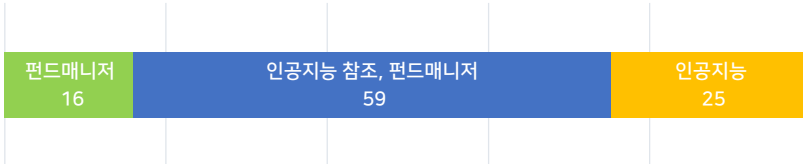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판결에 대해 선생님은 어떤 판결을 신뢰하시겠어요?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징역 8개월, 벌금 700만원' 판결**

- ① 전적으로 판사가 내린 판결
- ② 인공지능 판결을 참조해 판사가 내린 판결
- ③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내린 판결

투자 내용 선택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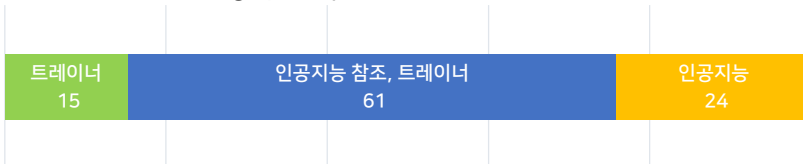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투자 내용에 대해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사야 할 코스닥 주식 종목을 말하면서 향후 주가 상승률 200%가 예상된다고 제시"**

- ① 전적으로 펀드매니저가 판단한 투자 권유
- ② 인공지능 결정 내용을 참조한 펀드매니저의 투자 권유
- ③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결정한 투자 권유

건강 지침 선택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다음과 같은 건강 지침에 대해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따르시겠어요?

**"개인 맞춤 건강식단과 일일 운동량 권유"**

- ① 전적으로 트레이너가 추천한 건강식단과 일일 운동량
- ② 인공지능을 참고한 트레이너의 건강식단과 일일 운동량
- ③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건강식단과 일일 운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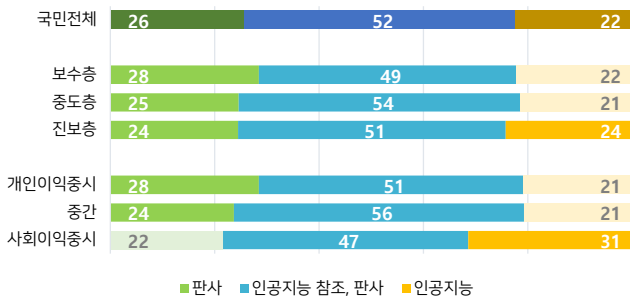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국민들은 능력 면에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인공지능에 결정권을 주는 것에는 감정적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정확한 결정이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인공지능에 결정 권한까지 주는 것에는 망설이는 것임
  - : 감정적 거부감에는 인간의 존엄성, 지구를 지배한다는 우월성 등 인간 중심적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이에 사람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활용하되, 결정권은 인간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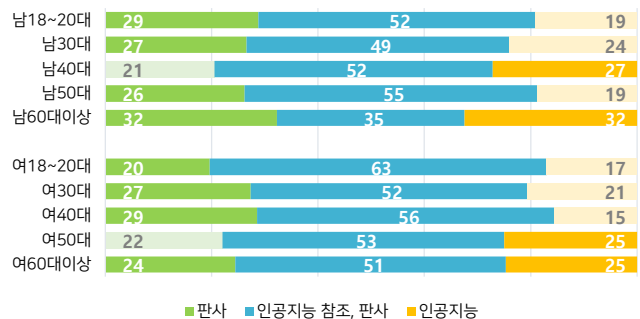
## □ '불법행위 판결, 신뢰'(사회 공적시스템) 세부 결과

- 인간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인공지능 판결을 참조해 판사가 내린 판결'을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52%)
  - 설문내용 : “다음과 같은 판결에 대해 선생님은 어떤 판결을 신뢰하시겠어요? :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징역 8개월, 벌금 700만원’ 판결
    - ① 전적으로 판사가 내린 판결
    - ② 인공지능 판결을 참조해 판사가 내린 판결
    - ③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내린 판결
- ‘전적으로 판사가 내린 판결’과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내린 판결’만 비교하면, 26% vs 22%로 ‘판사가 내린 판결’이 소폭 우세함
- 계층별로 ‘판사 판결’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중도층 △개인이익 중시층, 중간층 △남자 2030세대, 남자 50대 △여자 2040세대 △충청, 호남 △고졸 이하, 대졸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주부 △200~6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 ‘인공지능 판결’이 우세한 계층은 △사회이익 중시층 △남자 40대 △여자 50대 △TK △대학 재학, 대학원재학 이상 △학생, 은퇴.무직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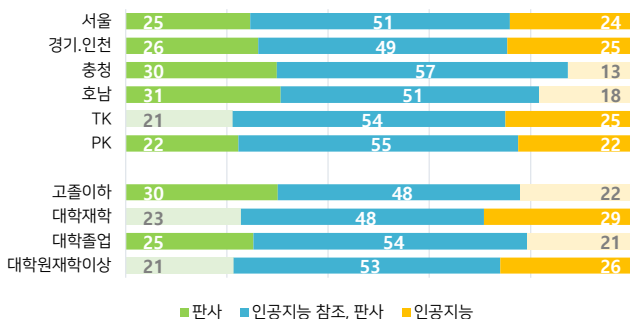
불법행위 판결, 신뢰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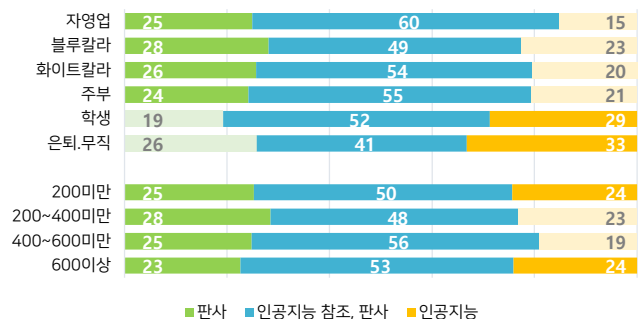
불법행위 판결, 신뢰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불법행위 판결, 신뢰: 지역별, 학력별 (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불법행위 판결, 신뢰: 직업별,소득별 (케이스탯,2021.10.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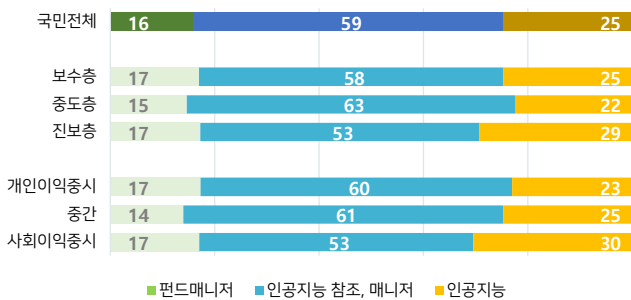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국민들은 인공지능을 참조한 판사의 결정을 가장 신뢰하고 있어, 그 자체로 인공지능의 유능함을 인정하고 있음
- ☑ 판사 결정 vs 인공지능 결정에 대한 신뢰도는 계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판사 결정이 우세함  
: 이는 판결의 정확도를 떠나 인간에 대한 처벌을 인공지능에 맡길 수 있느냐는 반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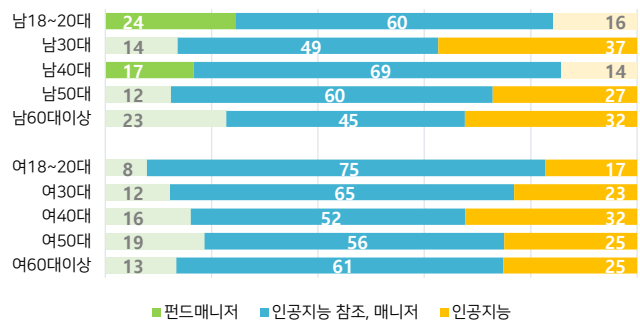
## □ '투자내용 선택'(경제적 부담시) 세부 결과

- 투자를 할 때 '인공지능 결정 내용을 참조한 펀드매니저의 투자 권유'를 선택하는 국민이 가장 많았음 (59%)
  - 설문내용 : “다음과 같은 투자 내용에 대해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 오늘 사야 할 코스닥 주식 종목을 말 하면서 향후 주가 상승을 200%가 예상된다고 제시”
    - ① 전적으로 펀드매니저가 판단한 투자 권유
    - ② 인공지능 결정 내용을 참조한 펀드매니저의 투자 권유
    - ③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결정한 투자 권유
- '전적으로 펀드매니저가 판단한 투자 권유'와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결정한 투자 권유'만 비교하면, 16% vs 25%로 인공지능이 우세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인공지능 투자 권유'가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남자 30대, 남자 60대 이상 △여자 40대 △대학원 재학 이상 △블루칼라, 은퇴.무직 등임
- '펀드매니저 판단 투자 권유'가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40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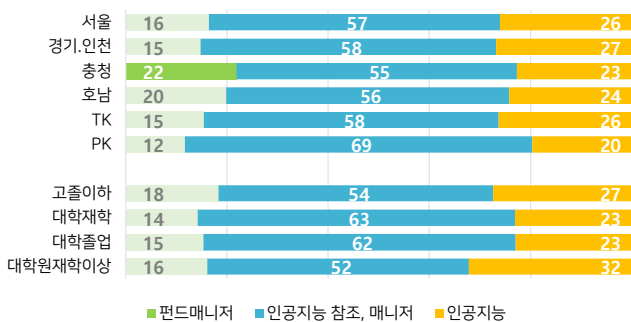
투자 내용 선택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1.10.10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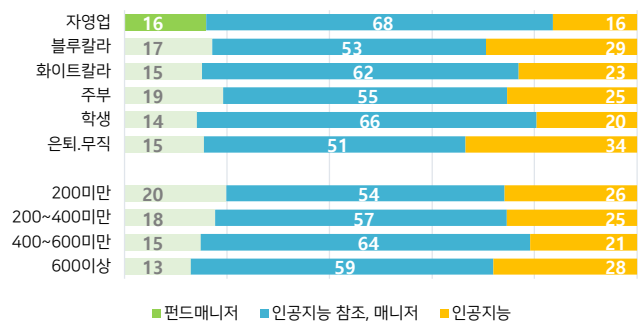
투자 내용 선택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1.10.10조사, 단위:%)



투자 내용 선택 : 지역별, 학력별 (자료:케이스탯, 2021.10.10조사, 단위:%)



투자 내용 선택 : 직업별, 소득별 (자료:케이스탯, 2021.10.10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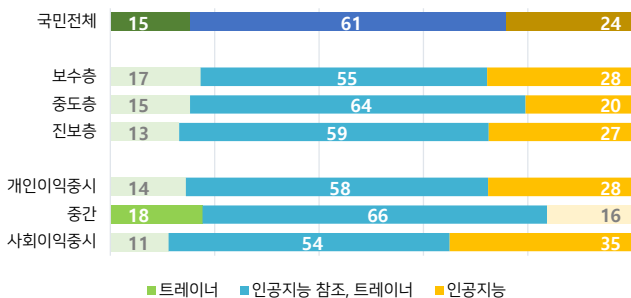
### Kstat Point

- ☑ 경제적 부담을 안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즉 투자권유에 대한 선택 시 국민들은 인공지능을 참조한 펀드매니저 권유를 가장 많이 선택함
- ☑ '펀드 매니저 vs 인공지능'으로 폭을 좁히면 인공지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 계층별로도 거의 인공지능이 우세해,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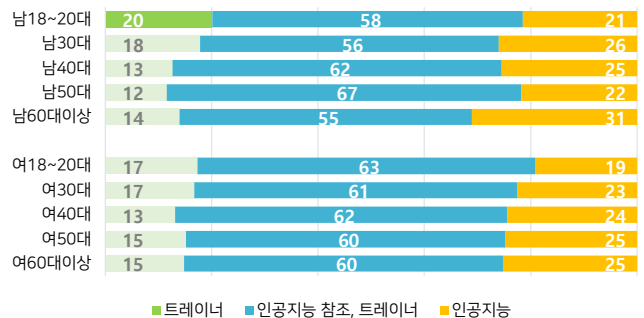
## □ '건강지침 선택'(경제적 부담 없는 경우) 세부 결과

- 건강지침 선택 시 '인공지능을 참고한 트레이너의 건강식단과 일일 운동량'을 선택하는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61%)
  - 설문내용 : “다음과 같은 건강 지침에 대해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개인 맞춤 건강식단과 일일 운동량 권유”
    - ① 전적으로 트레이너가 추천한 건강식단과 일일 운동량
    - ② 인공지능을 참고한 트레이너의 건강식단과 일일 운동량
    - ③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건강식단과 일일 운동량
- '전적으로 트레이너가 추천한 건강식단과 일일 운동량'과 '전적으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건강식단과 일일 운동량'만 비교하면, 15% vs 24%로 인공지능이 우세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인공지능 추천'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보수층 △개인이익 중시층, 사회이익 중시층 △남자 60대 이상 △학생, 은퇴.무직자 등임
- '펀드매니저 추천'이 우세한 계층은 △사회이익 중시 중간층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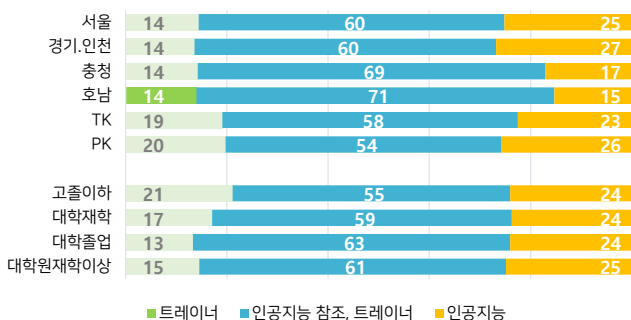
건강 지침 선택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1.10.10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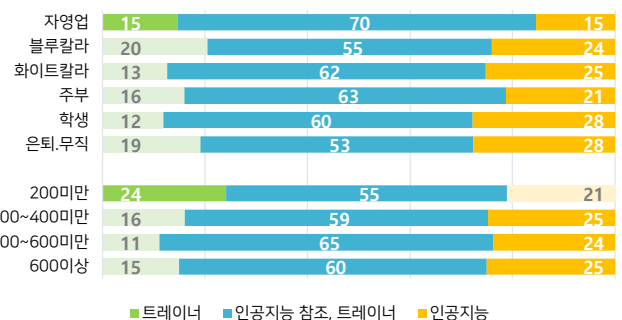
건강 지침 선택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 2021.10.10조사, 단위:%)



건강 지침 선택 : 지역별, 학력별 (자료:케이스탯, 2021.10.10조사, 단위:%)



건강 지침 선택 : 직업별, 소득별 (자료:케이스탯, 2021.10.10조사, 단위:%)



### Kstat Point

- ☑ 경제적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 즉 건강 지침 권유에 대한 선택 시 우리 국민들은 인공지능을 참조한 트레이너의 권유를 가장 많이 선택함
- ☑ '트레이너 vs 인공지능' 중으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인공지능이 확실한 우세를 보임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인공지능이 우세해, 국민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의 유능함을 인정하는 양상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케이스탯 리포트 39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39호는

11월 11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